

국제금융시장 5월 동향 및 6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박 지 혜 (jh5702@kdb.co.kr)

- ◆ (환율) 5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 진행 등으로 하락, 6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요인에도 트럼프 리스크 등 상방 요인으로 1,400원 근방에서 등락 전망
- ◆ (금리) 5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 감세안 하원 통과 등으로 상승,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우려 속에 상승 지속을 예상하나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상승 폭 제한
- ◆ (주가) 5월 주요국 주가는 美 관세협상 본격화 등으로 상승, 6월은 美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 판결 후 관세 부과 유지 결정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조정 가능성

□ 5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, 한은은 경기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25bp 인하, 中 인민은행도 대출우대금리 인하

- 美 연준은 FOMC(6~7일)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4.25~4.50%)
 - 美 경제의 1분기 역성장($\Delta 0.3\%$)에도 실업률*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등 고용상황이 양호하고, 인플레이션**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동결
 - * 美 실업률(%) : 4.1('24.12월) → 4.0('25.1월) → 4.1(2월) → 4.2(3월) → 4.2(4월)
 - **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(% , yoy) : 3.3('25.1월) → 4.3(2월) → 5.0(3월) → 6.7(4월)
 -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반등의 위험이 증가하였고, 경제전망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라 금리인하 재개는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
- 한국은행은 금통위(29일)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(2.75 → 2.50%)
 - 외환시장 변동성 등에도 물가* 안정세 속에 관세장벽 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1.9('24.12월) → 2.2('25.1월) → 2.0(2월) → 2.1(3월) → 2.1(4월)
 -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확대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전망치*를 하향,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자극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금리인하 시사
 - * '25년 한은 경제성장률/물가상승률 전망치(%) : 1.9/1.9('24.11월) → 1.5/1.9('25.2월) → 0.8/1.9(5월)
- 中 인민은행(20일), 대출우대금리(LPR)를 0.1%p 인하 (1년물 3.00%, 5년물 3.50%)
 - 인민은행은 미·중 통상마찰 대응과 내수 및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부양을 위하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*의 0.1%p 인하를 결정
 - * LPR금리 1년/5년(%) : 3.45/3.95('24.2월) → 3.35/3.85(7월) → 3.10/3.60(10월) → 3.00/3.50('25.5월)
 - 지급준비율*도 0.5%p 인하하며 中 당국의 완화된 금융환경 조성 의지 강화
 - * 지급준비율(% , 대형은행/중소형은행) : 9.5/6.5/6.6('24.9월) → 9.0/6.0('25.5월)

□ '25.6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FOMC(17~18일) : 경기 둔화 징후에도 고용시장*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 중이며, 관세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기준금리 동결 예상, 금융시장**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

* 美 4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7만 7천명 증가,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분인 15만 2천명을 상회

*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7.9%(‘25.5.28일)

- 유로존, ECB 회의(5일) 및 일본, BOJ 회의(16~17일) : 유로존은 관세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동결 가능성 제기에도 물가* 안정세로 ECB의 25bp 금리인하 전망, 일본은 식품 중심의 높은 물가상승률** 지속 등으로 BOJ는 금리인상 전망

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yoy) : 2.4(‘24.12월) → 2.5(‘25.1월) → 2.3(2월) → 2.2(3월) → 2.2(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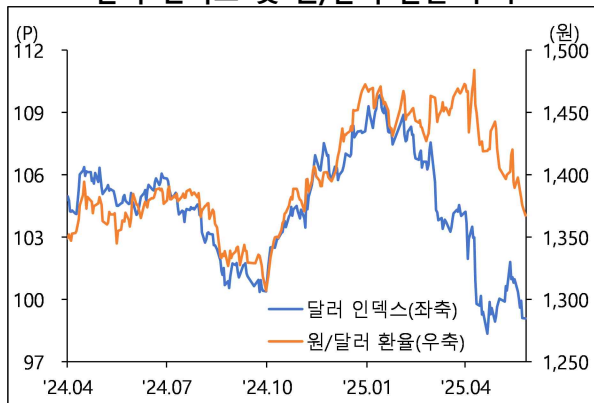
**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(% yoy) : 3.6(‘24.12월) → 4.0(‘25.1월) → 3.7(2월) → 3.6(3월) → 3.6(4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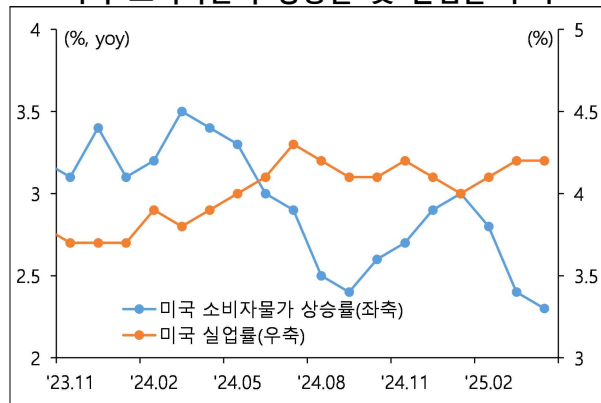
- (환율) 5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 진행 등으로 하락, 6월은 무역흑자 등 하방 요인에도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1,400원 근방에서 등락 전망
- 5월 원/달러 환율은 미국의 對EU 관세 유예 등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약달러 속에 한·미 관세협상(16일) 진행 등에 따라 하락
- 6월 원/달러 환율은 무역수지* 흑자 지속 등 양호한 달러화 수급 등이 하락 요인이거나, 한은의 금리인하 실시, 신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확대, 트럼프 리스크 등 상방 요인에 따라 1,400원 근방에서 박스권 등락 전망

* 국내 무역수지(억달러) : 64.9(‘24.12월) → △18.6(‘25.1월) → 41.6(2월) → 49.2(3월) → 48.8(4월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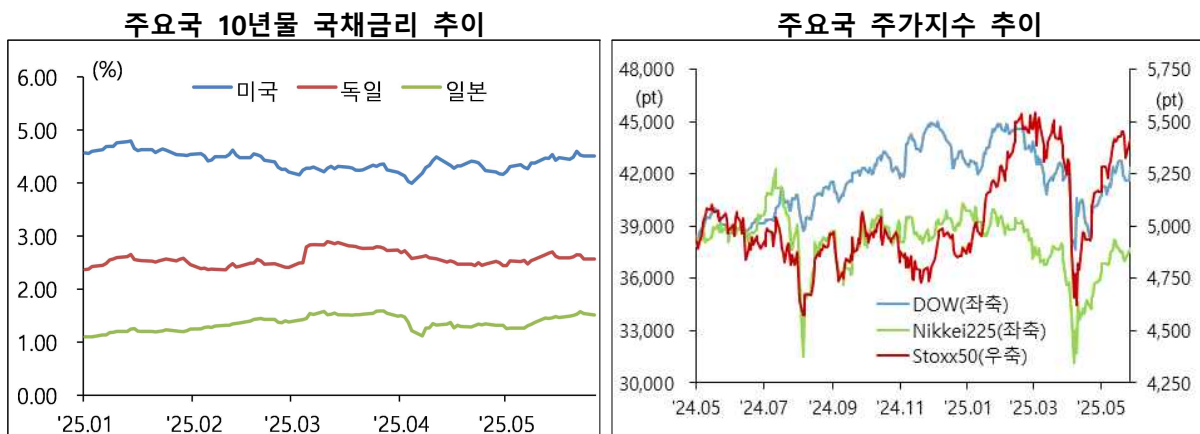
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



	'23년말	'24년말	'25.4월말	'25.5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421.0	1,367.3	△3.8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99.644	99.082	△0.6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5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 감세안 하원 통과 등으로 상승,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우려 속에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
 - 5월 미국 금리는 감세안 하원 통과(22일)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등으로 상승, 일본은 BOJ의 국채 매입 축소*, 정치권의 소비세 감세 논의 등으로 상승, 유로존은 ECB 인사들의 금리동결 가능성 제기, 역내 확장재정 기조 등으로 상승
 - * '24.8월부터 '26.3월까지 매 분기 4천억엔씩 국채매입 축소, '25.6월 BOJ 금정위에서 중간평가 예정
 - 6월 주요국 금리는 미국*과 일본('24년말 국가부채 비율 237%)의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상승을 예상하나, 채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
 - * 美 의회예산국은 감세안 의결 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3.8조달러 증가를 전망
- (주가) 5월 주요국 주가는 美 관세협상 본격화 등으로 상승, 6월은 美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 판결 후 관세 부과 유지 결정 등으로 조정 가능성
 - 5월 주요국 주가는 미·영 무역협상 타결(8일), 미·중 관세합의*(11일) 도출 등 미국의 관세협상 본격화와 對유로존 관세 부과 연기(~7.9일) 등에 따라 상승
 - * 미국은 對中 상호관세를 90일간 인하(5.14일~8.11일, 125% → 10%)하고, 중국도 對美 관세를 90일간 조정(125% → 10%)하는 한편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비관세 조치 철회
 - 6월 주요국 주가는 美 법원의 상호관세·국가별 관세 부과 중단 판결(28일) 후 관세 부과 유지(29일)*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조정 가능성
 - * 5.28일 美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관세·국가별 관세 부과 중단 판결, 이에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 및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, 5.29일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 정지 수용으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는 유지



	'23년말	'24년말	'25.4월말	'25.5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162	4.511	+8.4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444	2.567	+5.0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317	1.513	+14.9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0,669.36	42,343.65	+4.1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160.22	5,415.45	+4.9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36,045.38	37,724.11	+4.7%

자료 : Bloomberg